

## 大學生의 價値觀

洪 承 稷

(高麗大 社會學科 教授)

로 살펴보고자 한다.

## I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未來社會의 주인공인 大學生들의 社會的 比重이 높게 評價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특히 先進國과는 달리 全人口에 대한 大學生의 비율이 相對的으로 낮은 第3世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나라도 歐美 先進國에 비하면 統計的으로 볼 때 全人口에 대한 大學生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大學生들은 아직도 뽀힌 少數이며 그들의 社會적 비중은 그만큼 높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젊은 知性人으로서 大學生들이 우리 나라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세삼 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學生運動에 관한 參考文獻을 살펴 보면 곧 알 수 있다. 日帝時代에는 民族的 獨立을 쟁취하는 운동에 앞장섰고, 解放後에는 民主發展의 前衛隊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다. 이런 뜻에서 本稿에서 大學生의 價値觀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變遷過程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먼저 價値觀과 大學生의 屬性을 밝히고 오늘의 韓國的 現實에서 大學生의 가치관이 어떠하며 또 어떠해야 되는가를 개략적으

## II

## 1. 價値觀의 意味

價値觀이란 알기 쉽게 풀이하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觀念이다. 우리에게 가치관이 왜 重要한가? 가치관은 우리의 行動에 方向을 제시해 주고 또 그 행동에 意味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치관의 뜻이 의외로 평이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도 매우 쉽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價値觀의 問題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再認識해야 될 것 같다.

어느 사회고 安定과 秩序가 있으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大多數의 사람들이 대체로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共感을 느껴야 한다. 예를 들면 儒敎的 傳統이 지배했던 韓國社會에 있어서는 三綱五倫이 絕對的인 價値로서 信奉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生活規範이 삼강오륜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신봉되었던 유교적 전통은 歐美文化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韓國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儒敎的 傳統價値와 歐美的 現代價値의 混在에서 發生한다고 보아야 한다.

相互異質의인 混在가 어떤 樣相으로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전통적 長幼有序의 가치와 현대적 人間平等의 가치가 吸煙에 어떻게 反映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자. 과거에는 학생이 스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믿었다. 스승과 학생간의 長幼有序의 價値가 너무나 絶對적으로 신봉되었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人間은 平等하다는 時代的 思潮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師弟之間의 흡연 行위가 무질서하게 되었다. 師弟之間의 對話中 학생들의 흡연행위를 관찰해 본 결과 다음 다섯 가지 類型을 발견했다. 즉 (1) 감히 선생 앞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을 못하는 학생, (2) 선생하고 對話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고 외부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학생, (3)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자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선생에게 담배 피우시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학생, (4) 선생한테 부끄러움 없이 담배를 피워도 좋으냐고 물어보는 학생, (5) 서슴없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학생들의 흡연행위 中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 社會의 問題性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傳統的 師弟之間의 關係가 지배했던 시절에는 담배 피우는 문제를 놓고 선생과 학생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학생은 당연히 선생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선생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치에 대한 서로의 믿음이 같을 때는 相互接觸에 있어 葛藤과 誤解가 크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다를 때는 상대방이 「전방지다」 또는 「완고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상호간에 생길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價値觀은 우리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概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학생의 가치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것을 답하기 전에 대학생의 一般的 屬性부터 고찰한 후 그들이 몸 담고 있는

韓國社會의 現實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 2. 大學生의 屬性

대학생이 共通的으로 지닌 屬性 중의 하나는 그들의 젊음이다. 오늘날의 대학생은 대체로 196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日帝란 아득한 옛날로 생각되고 6·25란 아버지가 체험한 옛날 이야깃거리이고 4·19, 5·16 등의 사건도 책에서나 읽어서 겨우 아는 내용들이다. 이런 젊은 학생들은 관념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既成世代 못지 않게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항시 현실에 얽매인 완고한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비록 사회적 經驗은 적지만 책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概念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理想을 앞세우고 現實을 무작정 批判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서 대학생의 또 하나의 속성은 젊음에서 오는 理想的의 性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金錢萬能主義가 지배하여 요즘은 학생들은 기성세대보다도 더 現實的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期間보다는 앞으로 살아야 할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慾望과 期待는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일제의 쓰라림을 체험한 舊世代는 우리 나라와 日本과의 關係를 생각할 때 항시 과거의 경험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쓰라린 경험을 갖지 아니한 젊은 세대는 구세대와는 달리 폭넓게 의연한 자세로 日本과의 關係를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보다도 미래의 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나친 理想的의 思考는 그 나름대로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理想을 앞세우는 젊은이와 現實을 앞세우는 既成世代間의 끊임없는 對話가

요청되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대학생세대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또 하나의 속성은正義感에의純粹性이다.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 현실적利害關係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正義意識面에서 젊은이들보다 순수성이 약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기성세대가社會正義를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젊은층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직特殊利害集團에 얽매이지 않은 젊은 대학생들은盲目的인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社會正義를 부르짖을 때는 그만큼 순수성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學生運動의 중요한動機가 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순수한正義意識이 약하다면 그렇게도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도 빈번하게 대학가를 뒤흔드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現象이 모두 사회의健全한發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사회의現實을 진단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어느 사회이고完全無缺하여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問題가 있는 것이다. 사회의 어느 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制度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의 사회운동도 이런視野에서 해석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원숙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의不平, 不滿이制度的인裝置를 통해서 표출된다. 반대로 그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非制度的인 표출방법이 발생하는 법이다. 사회에 여러 가지問題點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正義感에 불타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한다면 그들은 자연히 비제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意思를 표출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사회적秩序와安寧이라는次元에서만統制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追求하는目標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이 최대한으로 사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3. 韓國의 現實과 大學生

학생들의思考方式과價値觀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全般的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6·25의 전쟁과 貧困의 極限 狀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기성세대들이國家安保와經濟成長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크게共感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戰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實感하지 못한다. 그것을政治的인 도구로만誤解하기 쉽다. 사실상 과거에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위정자들이 善良한 市民을 억압하는 듯한印象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國家安保의 문제는 어느特定 爲政者 또는 어느特定 市民에게만 關連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死活문제와 關連된다. 따라서 國家安保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最高의 保護對象價値로 받아들여야 한다. 낭만적인 젊은이들 가운데는民族主義를 名分으로 하여駐韓美軍을 단순한外勞로 간주하고 남한의獨自의인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옳은 주장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韓國의 安保上 매우 위험한着想이다.北韓에는中共과 소련이 인접하여 있으며 그들은實質的으로北韓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원한다면 아무 때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주한미군을 외세로 보고反美感情을 유발시키는 言動을 한다면, 한국의 安保上 용납될 수 없는態度이다. 6·25사변의性格과 그苦痛을 체험하지 못한 오늘의 젊은이는南北統一과民族主義를 낭만적으로 생각한 나머지非現實的인 安保觀에 빠지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현실적 안보관에 부채질을 하는國際關係가 또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美國과中共과의 關係이다. 한때 敵이었던中共과美國이 가까이 하고 소련에 대한共同防衛努力을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젊은이는 혼돈을 느낄 것이다. 우리를 防衛해 주고 있는 美國이 우리와 싸운 共產國家 中共과 가까이 하는데 同一民族인 共產 北韓과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민족이 統一되면 그만이지 어느 쪽이 통일하든 무슨 관계인가 하고 생각할 만큼 오늘의 젊은이 가운데는 공산주의에 대한 警戒心이 弱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極少數나마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 젊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해야 할 일이다. 과거 30여년의 反共敎育이 무엇인가 큰 허점이 있으며 또한 위정자들의 盲目的인 反共政策에도 허점이 있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또 憂慮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經濟發展에 대한 태도이다. 기성세대는 극한적인 빈곤에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거의 至上目標였으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經濟第一主義를 이제까지 부르짖어 왔다. 그 성과로 오늘날 우리 나라는 빈곤에서 탈피하여 中進國으로서 앞장을 서기도 했으며 오래지 않아 先進國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急速度로 우리 나라의 經濟가 成長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富益富, 貧益貧의 現象을 낳게 하였다. 正義感에 불타는 젊은 대학생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經濟發展에 대한 懷疑를 갖는다. "무엇을 위한 發展이며 누구를 위한 發展인가! 貧富의 隔差를 加速化시키는 경제성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한국의 현실에 던진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보다는 公正한 經濟的 配分の 문제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오늘날 젊은 大學生들이 勤勞者들의 低賃金問題를 심각하게 들고 나오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脈絡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 4. 大學生 價値觀의 문제점

오늘의 한국 대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한국 대학생의 價値觀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앞서 論述한 내용에 비추어 그들이

대체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필자 나름대로의 推論을 시도해 볼까 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韓國實情에 비추어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提言해 볼까 한다.

먼저, 오늘의 大學生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까? 크게 보아서 이들의 가치관은 앞서 論述한 두 가지 要因 즉 (1) 그들의 젊음, (2) 한국의 現實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젊기 때문에 理想主義的이고 기성세대에 批判적인 가치관을 지니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男女間의 關係에 있어서도 오늘의 젊은 대학생들은 매우 자유롭고 진취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 結婚對象者를 選擇하는 데 대부분 自己自身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면서도 알 수 있다. 과거와 같이 父母 또는 中媒人들에 의해서 결정되던 무작정 그 決定에 따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적어도 男女關係에 있어서는 매우 現代的인 價値觀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바라는, 또 많이 실천하고 싶은 現代적 가치관이지 한국의 현실은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現實과 理想 사이에서 葛藤을 느낀다. 西歐와 같이 남녀 관계가 완전히 個人中心的으로 결정될 만큼 우리 나라의 社會制度와 風習이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은 자연히 한국의 현실과 妥協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난 수십년간 학생들의 結婚對象者의 選擇觀을 調査해 보면, 대체로 변함없이 연애, 중매, 부모 의견을 모두 참작하는 現實 妥協的 傾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男女關係 및 結婚觀에 있어서의 가치관은 아직은 큰 社會的 物議를 일으킬 만큼 現代와 傳統의 對立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혹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個人과 家族單位內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大規模的인 社會의 動搖를 가져오게 할 만큼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政治와 經濟의 問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남녀관계 및 결혼관의 경우와는 달리 社會的으로 심각한 問題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現實 適應的

이기 때문에 무사히 대학을卒業하고就職하여 원만한家庭生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란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매우急進的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부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나少數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생은 철저히 자기의, 정치와 경제의 理念을 사회에反映시키려고 行動으로表示하려고 한다. 최근에 볼 수 있는 각종의 學園事態는 대부분 이런 학생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들은 既成政治人 또는 기성세대를 保守的이고 非民主的이라고 믿고 자신들은 進步的이고 民主的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이와 같은 믿음이 강하고 그것이 일단 行動으로 노출되어 주목을 받게 되면 이들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意識化된 위험인물로 고착된다.

다행히도 政府의 획기적인 斷案으로 학원사태로 除籍된 大學生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추호도 잘못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民主發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는 正反對로 그들은 犯法者로서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 사람들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 兩者間에는 서로의 價値觀이 지나치게 相衝되기 때문에 妥協點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大學生의 身分은 既成政治人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政治와 經濟에 대한 理念이 既成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學園內에서 實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學生身分으로 있는 한은 未來社會의 주인공이며 現社會의 주인공은 아니다. 아직도 學父母와 既成人들의 보호를 받으며 學問에 열중해야 할 신분에 있는 것이다. 爲政者나 既成世代도 이들을 過大評價해서 成人視하거나 또는 敵對視하여 이 사회에서 영구히 배움의 길을 막게 하거나 또는 사회에의 進出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면, 이것도 또한 順理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 Ⅲ

價値觀은 소망스러운 것에 대한 우리의 觀念

이며 그것은 우리의 行動에 方向과 意味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役割을 한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냐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診斷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몇 가지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젊기 때문에 理想主義的이며 行動性이 강하다. 동시에 그들은 기성사회의 利害關係에 얽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不條理를 보면 正義感에 불 분기가 쉽다. 이와 같이 批判的인 젊은이들은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에 복잡한 現實과 부딪칠 때 좌절과 葛藤을 느낀다.

한국의 현실은 젊은 대학생들이 가치관의 混亂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면이 많다. 지난 20여년간 經濟第一主義를 추구해 온 과정에서 사회계층간에 貧富의 隔差가 심해졌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의미를 재음미하려고 한다. 國際關係面에서도 한때 敵對國이었던 中共과 友邦인 미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反共理念에도 懷疑를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적인 젊은이는 非現實的인 統一論에 현혹되기도 쉽다.

위와 같은 일부 대학생들의 價値觀의 混亂은 학생들을 分裂시키고 기성세대와도 對話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때 학원소요로 제적되었던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기성세대와 이들간에 격의없는 對話와 위정자들의 깊은 忍耐와 理解가 없다면 또 다시 불행한 事態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追求해야 할 價値는 民主主義의 實現, 均衡 있는 지속적인 經濟發展, 튼튼한 國家安保, 平和的인 南北統一, 世界平和에의 기여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意見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敵對視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爲政者와 既成層의 무한한 사랑과 理解가 요구되며, 대학생들도 이 사랑과 이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이다. \*